

영상으로 만나는 전북의 독립영웅들

전북교육청, 광복 80주년 맞아… 백정기 의사 등 소개돼,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북 독립영웅들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 캐리커와 다양한 영상 효과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전북의 독립 영웅으로는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을 보고 고향으로 와서 만세운동을 이끈 백정기 의사가 소개됐다.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한 백정기 의사는 친일파를 처단하는 흑색공포단을 만들어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했다. 일본 주중일본공사 이리요시 아라키를 죽이려는 계획이 발각돼 일본의 감옥에 갇혀 순국했다. 이 영상은 미래교육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북 독립영웅들이 지켜낸 자랑스런 나라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이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북 독립영웅들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했다. 사진은 전북 독립영웅들 영상 썸네일이다.



전북대학교가 브라질의 대학 및 정부, 산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중남미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중남미 유학생 유치 교두보 마련

전북대, 브라질 상파울루대·국방부·항공 제조사 등과 협력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브라질의 대학 및 정부, 산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중남미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 5~9일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등을 방문했다. 브라질 최고 대학인 상파울루대학교(Universidade de São Paulo, QS 세계대학 랭킹 108위)와 라틴연방대학교(Latin Federal University) 등을 찾아 학술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또 브라질 국방부·엠브라에르(Embraer)와는 석·박사 위탁교육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에 뜻을 모았다. 상파울루에서는 ‘브라질의 하버드’로 불리는 상파울루대학교와 MOU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됐다. 양 대학은 교환학생 파견, 복수학위제 운영,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했다. 이어 라틴연방대학교와는 교환학생 운영과 복수학위제 도입, 전공 간 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MOU 체결에 합의했다. 특히 토목공학과 자원에너지공학, 컴퓨터공학을 비롯해 인문·사회·경상 분야 등에서 폭넓은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브라질리아에서는 교육·산업을 연계한 교도도 된 협력이 이어졌다. 양 총장은 브라질 국방부를 찾아 에랄도 루이스 호드리게스 방위산업장장 등과 면담하고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공

동 R&D, 기술혁신을 위한 MOU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세계적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 본사에서 찾아 석·박사 위탁교육과 온라인 교육 추진을 논의했으며, 전북대 항공우주·기계 분야 연구진과 엠브라에르 기술진 간 상시 협력 채널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외교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도 이어졌다.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최영한 대사와 면담을 갖고 브라질 우수 인재의 전북대 유치 방안과 K-컬처를 활용한 공공외교 전략, 첨단 방위산업학과와의 연계, 한-브라질 문화·학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브라질 방문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학문과 산업을 잇는 가교로서 중남미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의 이번 행보는 북미·유럽 중심의 기존 협력 축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풍부한 자원, 경쟁력 있는 항공·방위·IT·에너지 산업을 보유한 만큼, 전북대의 글로벌 연구협력과 인재 양성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2024학년도 후기 학위식이 13일 열린 가운데, 한 졸업생과 가족이 졸업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상과 나누며 더 큰 가치 만들어가길”

전주대, 548명에 202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대면 행사 없이 진행… 19일까지 포토존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학년도 후기 학위식에서 학사 352명, 석사 172명, 박사 24명 등 총 54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별도의 대면 행사 없이 진행됐다. 이에 13~19일까지 교내에서 학위복 대여와 사진 촬영이 가능한 ‘졸업기념 포토존’을 운영, 졸업생과 가족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배 총장은 “학위 수여는 졸업생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 지식과 인격을 완성해 낸 귀한 결실”이라며 “이 결실을 자부심으로 품고 세상과 나누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지역 국제개발 새 이정표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센터 주도 ‘ODA 협력체계’ 출범
농생명·스마트농업 지역 강점 살려 기관 해외 진출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전북형 ODA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생명과학대학 분관에서 ‘전북지역 ODA 활성화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주도로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연구원, 농촌진흥청,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시정연구원, 도내 대학·공공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이는 지역의 흠어진 ODA 역량을 통합해 지·산·학·연이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전북형 ODA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는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스마트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관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북대 백석희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이 ‘전북 ODA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참석자들이 향후 추진 전략과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윤명숙 대외취업부총장은 “이번 협의회는 전북형 ODA 협력체계 구축의



첫발”이라며, “전북의 기관들이 국제개발 현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학생들도 ODA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석희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역 내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라며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ODA 모델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국제사회 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5년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간 협약으로 설치된 이후 국제개발협력 강화 개설행, 기업·개인 대상 전문교육, 세계시민교육, 대학생 ODA 서포터즈 ‘오다수(ODA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ODA 저변 확대에 앞장서 왔다.

/장은성 기자

수해 지역민과 학생들 아픔 함께 나누다

전북대, 수해지역 돕기 모금 운동·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모금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특별재난장학금 편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모금운동을 벌이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재난지원 장학금까지 긴급 편성했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608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선 회복과 복구를 돕기 위한 마음이 담겼다. 앞서 전북대는 자연재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5,000여만 원 규모의 ‘특별 재난지원 장학금’을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졸업자 지원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전주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주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공업고, 전북기계공고와 함께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에 진출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 학업연계, 자격 취득, 심리 상담, 진로 재설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이는 졸업생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직무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올해 처음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주공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졸업생 대상 경력 코칭, 전공심화 교육, 직무 맞춤형 연수 등 취업 지속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어 전북기계공고는 기존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생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특강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 정보 플랫폼을 통해 졸업생들이 쉽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발

아름다운 기부 실천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본청 회의실에서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대야남초등학교 방형상 주무관이 제출한 ‘건강하고 행복한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해요’가 뽑혔다.

이밖에 △교원임용시험 공공증 교육 영상으로 해결 응시자 부정행위 OUT!, 불이익 ZERO!(우수) △도서관 협력 학교대출 서비스 시행으로 전북 학생 온(溫)책읽기 확산(장려) △단독 추진으로 좌초된 사업, 지자체와 협력 추진으로 되살려 지역 정주여건 개선(장려) △공간, 자연을 다시 짓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완성한 학교공간 리디자인(장려) 등이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A특수학교 관리자 갑질 진상조사를”

전교조 전북지부 “부당 업무 지시·폭언 등 벌여… 엄벌해야”
해당 관리자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 성실히 감사에 응할 것”

최근 도내 A특수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따른 체력 관리라는 이유로 2개월 간 매일 아침 20분 정도 장애 학생 등을 포함한 교사 등에 운동장 걷기 프로그램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3월 25일 전공과 협의회에서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특수학교 관리자 갑질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특수학교 관리자 갑질 내용으로는 크게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 갑질, 폭언·인격 모독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부당한 업무 지시로는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미 추진 계획이 완료돼 체험이 진행되는 첫날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담당교사도 아닌 부장교사에게 폭언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체험 기간 5일 동안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부장교사는 병가 중이며, 담당교사는 의원면직을 선택했다. 이어, 복무 갑질로는 관리자가 청렴 연수를 이유로 교사의 병조퇴를 거부하며 진로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육아시간 결재가 난 상황에서 보고회 및 업무 협의 등을 이유로 내가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부모님 수술로 인해 서울 동행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학기말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폭언·인격 모독으로는 다수의 교사

들 앞에서 직책없이 이름만 부른다고나,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반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A특수학교 관리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A특수학교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의 갑질 사안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을 언급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접수된 갑질 민원 232건 중 갑질로 인정된 사례는 단 6건으로 인정률 3%로 전국 최하위”라며 “같은 기간 전남의 갑질 인정률은 40%(80건/200건), 정계율은 13%(25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그간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갑질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관리자는 “정당한 학사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담당 교사들께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면 죄송하다”며 “전북교육청 본청에서 감사가 진행될 경우 성실히 감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동장 걷기 프로그램은 전교생이 아닌 전공과 학생 대상이며, 이들은 고교 3년 과정을 마친 사실상 성인들이며, 해당 교육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며 “특수활동을 실시한 이유는 특수학급 학생들의 특성상 체력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울릉도, 독도 현장체험활동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육활동”이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